

점령하라

희망텐트 노동자참가단 특보

전화번호 : 010-6201-2383

블로그 : blog.jinbo.net/occupy77

이메일 : occupy77@jinbo.net

후원계좌 : 국민 812702-04-215225(조영태)

가자! 희망텐트촌으로!

23일(금)~24일(토), 죽음의 공장 쌍용차를 점령하자!

쌍용차 동지들이 12월 7일부터 희망텐트촌 투쟁에 돌입했다. 정리해고로 인한 죽음이 벌써 19명째, 이제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다. 경찰과 평택시청이 텐트를 철거하고 연행했지만, 쌍용차 노동자들은 이내 텐트를 다시 설치하고 굽힘없이 평택공장 정문 앞에서 오늘도 텐트촌을 지키고 있다. 전국의 노동자들이 만들어낼 사회적 연대를 기다리며!

노동자가 희망텐트촌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정리해고와 죽음의 문제는 단지 쌍용차만의 문제가 아니다. 2008년 쌍용자동차 바로 옆에 있는 전자부품업체에서는 중국으로의 공장 이전 계획에 화장실에서 목을 매 자살한 노동자가 있었고, 삼성 백혈병 노동자 등 산재로 목숨을 잃는 노동자들이 일 년에만 수천 명이다. 올 여름을 뜨겁게 달군 한진중공업 투쟁과 희망버스 운동에서 드러나듯이,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투쟁은 이미 모든 노동자의 과제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가?

희망텐트촌은 쌍용차 공장 앞에 세워졌지만, 단지 쌍용차 동지들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니다. 이 땅의 모든 노동자가 함께 만드는 마을이다. 정리해고, 비정규직을 비롯해 노동자의 삶을 위협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이고, 나아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자의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러한 자리에 노동자가 참여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자기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자리에 스스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누가 대신 싸워준단 말인가?

게다가 국가가 일방적으로 자본을 비호하며 노동자투쟁을 진압하고 기만적인 대책만을 내놓는 상황에서, 전국의 노동자가 힘을 합쳐 싸우지 않는다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는가?

쌍용차 노동자들이 계급적 단결과 사회적 연대로 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열어젖힌 장을 우리 노동자들의 자발적 직접 참여로 채워야 한다. 모

든 노동자는 23일(금)~24일(토) 희망텐트촌으로 집결해야 한다.

2009년 쌍용차 동지들의 77일간의 공장점거파업은 노동자 민주주의에 기반한 노동자 계급의 투쟁이 어떻게 상승할 수 있는지를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공장의 주인은 누구인가, 미래 평등세상의 주인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이제 전체 노동자의 힘으로 희망텐트촌 투쟁이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열어나가자. '죽음의 공장, 쌍용차를 점령하라' 희망텐트촌에서 시작하자!

나, 스스로부터의 직접행동! 노동자 참가단에 함께 합시다!

관료화, 박제화 된 공식 노조 체계와 상층기구 중심의 운동 관성을 끊어내고 세계 점령운동이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이 아래로부터의 직접행동과 대중총회를 통한 새로운 운동을 독립적으로 건설합시다. 그 어떤 제한도 없이 스스로 느끼고 있고 판단하고 있는 요구와 주장을 거침없이 쏟아냅니다. 수직적 체계를 거부하고 직접민주주의 아래에서 개별의 상상력을 모두 모아 집단지성을 발휘해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 나갑니다. 전 세계 인민대중이 이미 그렇게 움직이고 있으며 투쟁하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못할 바가 없습니다. 노동자 참가단으로부터 시작해 노동자계급 전체로, 인민대중에게로 확산해 나갑니다.

이렇게 행동합시다!

하! 23~24일 희망텐트촌 1차 포위의 날 참가를 조직합시다!

- 최대한 월차·조퇴·휴가를 활용하여 평택공장으로 집결합시다!
- 참가단 순회투쟁 시 선전전과 참가단 조직화 사업에 함께 합시다!
- 참가하기 어려운 동지들은 참가단 동지들에게 차비·식비·투쟁기금을 지원합시다!
- 쌍용차 희망텐트촌에 연대의 메시지를 담은 대자보, 편지를 전달합시다!
-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이용하여 1차 포위의 날을 알립니다!
- 참가하는 동지들은 참가단 몸벽보를 두르고 포위의 날 투쟁에 앞장섭시다!

둘! 23일 밤 11시 총집결하여 이후 행동을 집단적으로 결정합시다.

- 희망텐트촌으로 달려온 참가단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집단적으로 토론합시다!
- 노동자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모두가 평등한 자격에서 창의적 의견을 제안합시다!

죽음의 쌍용차 절망공장에 희망의 불씨를 지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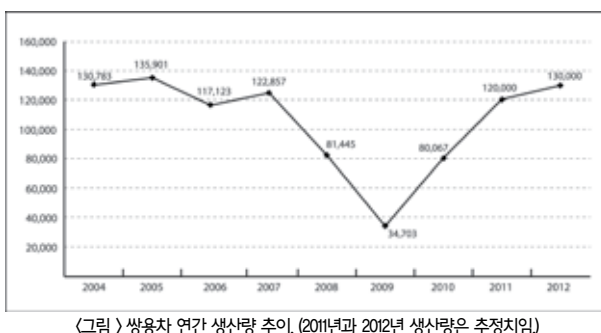
이 시대를 살아가는 노동자의 요구

23~24일 쌍용차 희망텐트촌에 입주하는 <노동자 참가단>은 단순히 쌍용차 노동자들의 억울한 죽음을 추모하고 이 투쟁에 연대하기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다. 아주 조금의 차이가 있을 뿐, 쌍용차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은 모든 노동자들의 고통과 똑같은 것이다. <노동자 참가단>은 쌍용차 투쟁이라는 그릇 속에 다음과 같은 노동계급 전체의 소중한 요구가 녹아 있기에 희망텐트촌에 입주한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쌍용차 정리해고자·정직자·휴직자·비정규직 전원 원직 복직!

쌍용차 정리해고 발표 직후 지난 2년6개월 동안 무려 19명의 쌍용차 노동자와 가족들이 죽어갔다. 평균 한달 보름에 1명 꼴로 죽어간 것이다. 하지만 이게 어디 쌍용차만의 문제인가? 거대기업 KT에서도 지난 2년간 20명 가까운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의문사·돌연사·사고사로 죽어갔다. 지금도 하루에 7명씩 산재사고로 노동자들이 죽어간다. 멀리 갈 것도 없이, 1주일 전에는 인천공항철도에서 5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열차에 치어죽는 참사가 벌어졌다.

그러나 쌍용차·KT·코레일 등 자본가들은 어느 놈 하나 책임지는 일이 없다. 명백한 살인행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어떤 자본가도 처벌받았다는 소식을 들어본 바 없다. <노동자 참가단>은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한 첫걸음으로 2년 전 쌍용차에서 벌어졌던 구조조정의 희생자였던 정리해고자·정직자·휴직자·비정규직 전원의 원직 복직을 요구한다. 쌍용차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전국에서 벌어지는 자본가들의 살인행위를 차단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인간이다! 살인적 노동강도, 비정규직 확대, 비인간적 노동통제 분 쇄하자!

쌍용차에서 2년 전 정리해고·구조조정으로 무려 3천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공장 밖으로 쫓겨났다. 그런데 놀랍게도 생산량은 2004~2005년 수준을 거의 회복해가고 있다.(그림 참조) 생산직 노동자 수는 절반 가까이 줄었는데, 생산량은 2배로 늘었다! 쉽게 말

해 현장은 엄청난 노동강도 강화가 벌어지고 있다는 말이다. 절망공장에서 얼마나 쥐어짜고 있겠는가!

사측이 자료를 내놓지 않아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쌍용차 현장에 아무도 모르게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미 희망퇴직 후 분사화되어 하청 신세로 전락한 노동자들도 있다. 1차 하청만이 아니라 2·3차 하청도 꽤 늘고 있다.

“당신 말고도 밖에 일할 사람 많다.” 짝센 노동강도로 골병이 들고 있지만, 회사의 이 한마디에 산재 신청은 꿈도 못 꾸다. 조퇴·휴가 사용은 물론이고 잔업·특근을 빼는 것도 회사 눈치를 봐야 한다. 현장에서 일하다가 급하게 화장실을 가야 할 때, 친지와 가족 결혼식 등 경조사 날에 특근이 잡혀있을 때마다 “과연 내가 사람 구실 하며 살고 있는가”를 의심하며 살고 있다.

이 역시 쌍용차만의 문제가 아니다. 직장폐쇄 공격이 벌어졌던 발레오만도, KEC, 유성기업 등에서는 공장 복귀한 노동자들에게 정신교육을 시키고, 옷 색깔을 달리 입히기도 했으며, 풀뽑기를 시키거나 심지어 “나는 개다”를 복창하게 만드는 파렴치한 짓도 서슴지 않았다. 바른 말 잘하고 불의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쫓겨나자 자본은 현장을 ‘강제노동 수용소’로 만들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주장한다. 노동강도 강화를 저지하고 비정규직 확산을 막아내며 비인간적 현장 통제를 박살내기 위해 쌍용차 투쟁부터 시작하자고 말이다.

해고는 살인이다. 정리해고 철폐하자!

“해고=살인”이라는 말은 단순히 슬로건이 아니라 현실에서 벌어지는 명백한 사실임이 쌍용차 사태에서 입증되었다. 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 앞으로 몰려들었던 희망버스 승객들의 생각은 한결같았다. “정리해고, 남의 일 같지가 않다. 지금 한진에서 정리해고를 막아낸다면 다른 곳에서도 사장들이 함부로 정리해고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현재진행형인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를 막아낸 것에 이어, 2년 전에 정리해고가 진행되어버린 쌍용차에서 정리해고를 무효화할 수 있다

면,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정리해고’란 단어를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화! 비정규직 철폐하자!

쌍용차 77일 점거파업은 원·하청 공동투쟁이었다. 정리해고 분쇄와 함께 ‘분사화 저지, 비정규직 고용 보장’이라는 3대 슬로건이 점거파업의 정신이었다. 지금도 지역 한나라당·민주당 국회의원실 앞에서 비정규직회 동지들의 천막농성이 두 달째 이어지고 있다. 현대차에서, GM대우차에서, 사내하청이 늘어난 것은 정리해고로 쫓겨난 정규직 일자리를 대체하면서이다. 정리해고와 사내하청 확대는 동전의 양면이다. 전국에서 투쟁을 벌이고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쌍용차 투쟁에 함께 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늘리기! 최저임금 대폭인상! 생활임금 쟁취! 노동자 살리는 주간연속 2교대!

최근 고용노동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립3팀과 창원 엔진공장 등에서 하루 3시간씩 잔업을 주 5일 실시하는 등, 근로기준법조차 어기며 장시간노동을 강요해왔음이 드러났다. 노동강도를 낮추고 노동시간을 줄인다면 정리해고자·휴직자·정직자·비정규직 노동자들 모두가 현장에 돌아갈 길이 열린다.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를 늘리자는 것은 고용노동부까지 앞장서 떠드는 내용 아닌가!

아울러 야간노동, 잔업·특근 등 장시간노동을 강요해왔던 저임금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를테면 쌍용차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거의 최저시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 40시간 노동으로는 절대 생활임금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생활임금 쟁취로 나아가야 한다. 특히 자동차산업에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늘리며 생활임금을 보장받는 ‘노동자 살리는 주간연속 2교대’를 쟁취하는 것은, 전체 산업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선도하는 중요한 계기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쌍용차 노동자들의 고통 속에는 전체 노동계급의 절실한 요구가 들어 있다. 바로 이러한 요구들이 우리가 쌍용차 투쟁에 연대해야 하는 수많은 이유들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권과 자본가들은 ‘정리해고 없는 세상’,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자본주의에서 불가능하니 꿈도 꾸지 말라고 한다. 그렇다면 문제는 바로 자본주의다! 어떤 이들은 내년에 총선·대선이 있으니, 선거에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내년 선거까지 노동자들의 문제 해결을 미루라는 것인가? 총선·대선에 기대지 말고, 지금 당장 노동자투쟁으로 해결하자! 희망텐트로 집결해서!

23일, 쌍용차 공장에서 만납시다.



09년 뜨거웠던 여름, 77일 투쟁을 기억하십니까? 쏟아 붓는 최루액과 완전무장을 한 용역 강패, 폭력경찰에 맞서 우리는 하나로 투쟁했습니다. 우리의 공장, 나의 삶을 사수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모았습니다. 공장 밖에서는 가족과 수많은 양심들이 달려왔습니다. 정리해고

분쇄 투쟁! 전투에서는 패배했지만, 우리의 소중한 정당했던 투쟁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기만 합니다.

투쟁의 과정에서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정리해고는 쌍용차만의 문제가 아님을. 하루살이 비정규직과 분사의 문제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처해있는 현실임을. 쌍용차 공장점거 투쟁을 진압한 이명박과 공권력은 자본가 국가권력의 일반적 모습임을. 그렇습니다. 쌍용차 투쟁은 쌍용차 노동자들만의 투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동지들과 함께 <희망텐트촌>을 세워나가려 합니다. 희망텐트촌은 이 땅의 고통 받는 모든 노동자의 희망이고 싶습니다. 정리해고 없는 세상을 위해 투쟁하는 모든 이들의 희망이고 싶습니다.

올 여름 한진의 희망버스는 그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 투쟁에 수많은 이들을 모아냈습니다. 그러나 정리해고, 비정규직을 만들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 즉 체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는 한계입니다.

희망텐트촌은 단사의 문제를 넘어 정리해고를 만드는 구조와 체제의 문

제를 제기하는 투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죽음을 재생산하는 구조와 체제는 사라져야 합니다.

연쇄적인 죽음이 이어지면서 동료와 가족을 잃는 가슴 찢기는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동지들의 가정이 파탄 났습니다. 아직도 77투쟁 당시 공권력 만행의 후유증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생계의 문제로 수많은 동지들이 투쟁의 일선에서 떨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투쟁은 한시도 멈추지 않았습니 다. 그럴수록 우리의 대오를 강하게 하자는 결의를 다집니다. 20번째 죽음을 반드시 막고 공장으로 돌아가겠다는 투쟁의 결의를 다집니다.

그 투쟁에 동지들이 함께 하여 주십시오. 죽음의 행렬을 멈추어 주십시오. 23일 쌍용차 평택공장에 함께 하여 주십시오.

- 12월 18일,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 김정우 드림.



쌍용차가 동희오토가 되었다면?

점심을 먹고 의장 조립라인에 들어가 볼트를 박던 한 젊은 노동자가 갑자기 배가 아파오기 시작했고, 심상치 않다 여겨서 조퇴하려고 했지만, 업체는 “사람없으니까, 참아봐” 라며 무시했다. 젊은 노동자는 식은 땀을 흘리며 참았으나 결국 라인에서 쓰러졌다. 젊은 노동자는 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고 장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라인 동료의 결혼식에 토요일 주간특근이 잡혔다. 동료들은 한명도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업체 관리자들만 몇명 갔을 뿐이다. 토요일 주간특근에 결혼식을 잡은 새신랑이 바보인가? 다음부터 결혼할 사람은 주간 근무조 때 일요일로 날짜를 잡아야 한다. 에이씨.. 도장공장은 일요일 청소특근도 있으니까 그것도 안되는데...

어느날 동희오토 공장에서 벌어진 일들이다. 100% 비정규직 공장, 정규직이 한명도 없는 절망의 공장이라고 알려진 동희오토에서. 그러나 나는 요즘 쌍용차를 보면 동희오토가 겹쳐진다. 과연 공장일까? 점거파업 당시 사측이 분사화 계획을 냈을



때 동희오토 조합원들은 깜짝 놀랐다. 사측의 계획대로라면 쌍용차의 미래는 동희오토이기 때문이다.

공장점거 파업 이후 2년 반이 지난 지금의 쌍용자동차 공장. 민주노조는 공장밖으로 밀려나고 자본이 통제하고 있는 공장안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산자는 살아야하지 않겠냐며 서로를 향해 새총을 쏘고, 쇠파이프질을 해서 결국 살아남았던 산자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알려진 바가 없다. 그래서 더욱 문제다. 동희오토의 현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하는 과정에서 사회에 알려지게 되었지만 쌍용차는 그럴 수도 없을 만큼 자본의 통제하에 놓여있으니 말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과연 아무것도 모르는가? 단적으로 생산대수는 08년 이전수준을 회복했지만, 이것을

생산하는 노동자들은 당시보다 2천명 이상 적다는 것만으로도 공장이 어떻게 돌아갈지, 자본의 통제가 어느 정도일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정리해고의 광풍이 휩쓸고 간 쌍용자동차. 19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그러나 그 절망은 해고노동자들에게만 해당되지는 않는다. 그 19명의 죽음에 2명의 산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다. 정리해고를 통해서 죽음의 공장, 절망의 공장이 되어버린 쌍용차 공장의 소위 ‘완성차 정규직 귀족노동자’ 들의 현실은 100% 비정규직 공장 동희오토와 다르지 않을 정도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아니 최소한 동희오토 비정규직 중에 자기 목숨을 내던진 경우는 없었다.

고장난 자본주의! 노동자들을 죽음과 절망으로 몰아넣지 않고서는 유지할 수 없는 자본가들의 체제. 쌍용차는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정리해고, 구조조정을 통해서 자본이 만들어낸 죽음의 공장 안과 밖. 산자와 죽은자 모두에게 절망을 안겨 주었다.

이제 쌍용차 노동자들이 그 절망의 공장에 다시 희망의 불씨를 지피려 한다. 희망텐트촌 노동자 참가단에 함께 하자!

- 동희오토 사내하청 노동자

점령운동이 세계를 휩쓸고 있다!

세계 자본주의 위기에 맞선 대중들의 투쟁이 확대되고 있다.

노동유연화, 물가폭등, 대대적 복지삭감 등으로 표현되는 자본의 위기전가에 맞선 대중들의 투쟁은 현재 세계적 수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재정위기를 노동자 대중에게 전가하려는 정부의 긴축정책에 항의해 대대적인 총파업으로 맞서는 그리스·스페인 노동자들, 노동자·청년·학생들이 자치적인 꼬문을 형성해 도시차원의 대대적인 총파업 투쟁을 제안해 10만여 명의 파업시위대중의 힘으로 물류와 항만을 멈추었던 미국 오클랜드의 총파업 투쟁 등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공장점거, 광장점거 등 점령운동이라는 더욱 발전된 형태로 전진하고 있다. 이집트의 타흐리르 광장점거운동과 이 투쟁에 직접적인 영감을 받은 스페인의 분노한 사람들의 마드리드 푸에르타 델 솔(태양의문) 광장점거, 미국의 월가 점거투쟁 등은 대중투쟁의 역동성과 자신감을 확인하며 투쟁이 더욱 확대·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이러한 투쟁들의 발전은 자본의 위기전가에 맞선 투쟁을 넘어 체제에 대한 근본 문제를 제기하며 자본주의를 넘어 대안적인 사회에 대한 전망을 요구하고 있다. 점령운동의 주요요구인 “1%의 자본에 맞선 99%의 대안”이라는 슬로건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희망텐트”로 죽음의 공장을 점령하라

이러한 세계적인 투쟁의 물결 확산은 한국에도 다다랐다.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와 같은 노동의제를 사회적 의제로 제기하며 사회적 연대투쟁으로 확장된 희망버스운동과 전 세계적 점령(Occupy)운동과 연계된 공동행동, ‘비준무효, 명박퇴진’을 요구하는 한미FTA반대운동 등 대중투쟁의 파고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운동들은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자신감과 투지를 불러일으키며 점령운동과 희망버스운동을 결합한 사회적 연대운동인 희망텐트운동으로 진화·발전하고 있다.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를 사회적 의제로 확장한 희망버스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비판적으로 계승하며 이를 넘어 정리해고를 강제하는 구조와 체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데 까지 나아가고 있다.

살인적인 정리해고로 19명의 목숨을 앗아간 죽음의 공장을 점령하자는 희망텐트의 슬로건은 쌍용차 뿐 아니라 모든 노동계급의 슬로건이 되어야 한다.

이미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확산으로 이 땅의 모든 사업장은 죽음의 공장이 되어버린 지 오래다. 분사와 정리해고로 20명의 목숨을 앗아간 KT가 있고, 무리한 작업지시로 5명의 비정규직노동자를 열차에 치어 죽게 한 공항철도가 있고, 정리해고도 모자라 구속까지 자행하는 유성기업이 있으며, 노동자들을 1400여일 넘게 거리로 내몰고 있는 재능자본이 있다. 그뿐이라, 지금도 정리해고와 비정규직화의 칼날을 휘두를 준비를 하고 있는 수많은 자본가들이 우리들의 등 뒤에 있다.

죽음의 공장 점령을 넘어 자본주의 점령으로 나아가자

12월7일 평택에 희망텐트가 세워지면서 이제 남한의 점령운동은 시작됐다. 23일 희망텐트로 모여 죽음의 공장을 포위하고 점령하자. 점령을 확장하자.

한편으로 점령운동의 확장과 전진을 위해 경계해야 할 큰 걸림돌들이 있다. 한미FTA 반대투쟁에서 드러난 물계급적 국익론과 야권연대에 기댄 선거심판론, 그리고 한국의 점령(Occupy)운동에서 나타난 반자본주의가 아닌 신자유주의, 국제금융자본 반대론 등이다. 또한 야권연대세력을 끌어들이려 한진의 국회권고안 합의처럼 기만적인 합의에 투쟁을 제한하려는 노조지도부들의 기회주의, 관료주의적 행태들이다.

이 걸림돌들이야말로 점령운동이 발전하려면 반드시 뛰어넘어야만 하는 것들이다. 그리고 이 걸림돌들을 뛰어넘어 계속 전진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대중 자신들의 직접행동뿐이다. 이집트의 타흐리르 광장점거운동을 비롯한 세계적 점령운동이 보여주듯이 대중들의 민주적인 총회와 집단 토론으로 결정된 대중 직접행동만이 운동이 전진하는 유일한 길이다.

23일 희망텐트로 모이자. 미국의 오클랜드 대중들이 총회를 열어 점거와 총파업을 결행했듯이 희망텐트에 모여서 대중 스스로 민주적인 집단적 토론과 직접행동으로 점령을 확대하고 총파업을 결의하자, 파업투쟁으로 구속되고 19명이 죽어나가도 총파업 한번 못하고 있는 게 한국노동운동의 현실이다.

대중들의 직접행동으로 지침을 뛰어 넘는 공장 점령과 총파업을 결행하자. 정리해고 분쇄, 비정규직 철폐, 야간노동 철폐, 노동악법 폐기를 넘어 공장물류, 노동자통제, 노동자정부로 의제를 확장하자. 뿐만 아니라 무상교육, 실업수당요구 같은 청년·학생·실업자 등 자본주의 체제에서 억압받고 고통받는 모든 계층의 요구와 열망도 함께 제기하자. 23일 희망텐트에 모여 민주적으로 토론하고 집단적으로 결의하자. 그리고 힘차게 투쟁하자. 투쟁!!

노동자 참가단 현장 순회 일정

18일 (일)

- 노동자 참가단 출정식 (쌍용차 공장)

19일 (월) 경기지역

- 현자 아산, 두원 정공, 만도기계 평택, 한라평택, 기아 화성

20 (화) 경기 인천 지역

- 기아 소하, 안산, 지엠 대우

21 (수) 창원, 부산지역

- 창원 쌍차 공장, 지엠 창원 공장, 부산 한진, 부산 풍산 마이크로텍

22 (목) 울산, 충남

- 울산 현대차, 충남 금속,

23 (금) 충남

- 현대제철, 하이스코
- 쌍용차 금속 결의 대회
- 11시(노동자 참가단 전체 토론회)

▶▶ 일정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경된 일정은 노동자 참가단 블로그를 통하여 확인바랍니다. 각 현장과 지역에서 노동자 참가단과 함께 하고자하는 동지들께서는 아래 블로그나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노동자 참가단 전체 집담회



- 일시: 12월 23일 밤 11시
- 장소: 쌍용차 공장 희망텐트촌 근처
- 참가 대상: 희망텐트촌 노동자참가자 및 누구나
- 주제: 희망텐트촌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계획
- 프로그램: 노동자 참가단 간단한 인사, 전체 토론

참가문의

블로그 : blog.jinbo.net/occupy77
전화번호 : 010-6201-2838